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조선희¹, 한은주^{2*}

¹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Gender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Sunhee Cho¹, Eun-Ju Han^{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²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희롱 인식과 성 태도 및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남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한 달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2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서술통계, 독립표본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보수적인 성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73$).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서 남학생은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고($r=.301, p=.003$), 여학생은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다($r=-.199, p=.025$). 본 연구를 통하여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희롱 인식 수준의 상관관계에서 확인한 성별 차이를 확인했다. 향후 성별 특화된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차이, 대학생, 성희롱, 성태도,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sexual attitude, and correlation between them amo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in a 4-year university in Jeollanam-do and a total of 127 female and 93 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April, 2018.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Male students' level of sexual harassment awareness were lower than female's ($p<.001$). Male's sexual attitude was more conservative, but difference of sexual attitude between male and fema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73$).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more conservative sexual attitude was related to the higher level of sexual harassment awareness in male group. On the contrary, the more conservative sexual attitude was related to the lower level of sexual harassment awareness in female group.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ender-specific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College student, Sexual harassment, Sexual attitud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Eun-Ju Han(hejsyc@hamail.net)

Received September 11,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October 7,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생식능력 발달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생애 중 가장 역동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감, 가치관등을 확립하는 과업을 갖는 시기이다. 대학생은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므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 [1] 뿐 아니라 생리적, 인지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2].

최근 한국 사회는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서구 사회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성과 관련된 대학생의 성 행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성 개방과 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학생의 성태도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3]. 이러한 성 개방화 추세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방적 성 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회생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성 상품화, 자극적 표현, 향락산업 발달, 비공식적 성지식의 습득과 같은 왜곡된 성 인식 환경 등이 대학생의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의 강한 스트레스 해소 욕구와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대학생 집단에 불건전한 성문화가 조성되고 있다[4].

우리사회에서 성의식의 혼돈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대학 내 성희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 대학 내 성희롱 문제의 다른 측면에는 성차별 문제와 성희롱 인식 및 성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6]. 성희롱과 성불평등은 가부장적 문화, 남녀의 권력구조,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고 피해자에게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7]. 성희롱은 직종과 무관하게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낮은 성희롱 인식과 불건전한 성태도는 성희롱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2-4]. 대학 내 성희롱 등 성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에 앞서 대학생의 올바른 성태도와 건전한 성희롱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다는 보고가 있으나[6] 이는 성희롱 인식 수준의 단면에 불과하여 성태

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학생의 성태도 관련 연구[8,9]에서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성태도의 확연한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의 성별 차이를 함께 분석한 선행연구가 한 편 있으나[9] 자료가 10년 전의 것이고, 성태도의 성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어 현 시점에서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 건강을 조절하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남녀의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 차이를 반영하여 그 특성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1개 4년제 종합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 변수의 수 10개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는 118명이었다. 회수율 70%, 불성실 응답률 10%를 가정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241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회수율 96.4%),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의 도구

2.3.1 성희롱 인식

성희롱 인식도구는 성희롱 통념 수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등[10]이 개발한 24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역산문항을 가지고 있다. 총점 24~120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성희롱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일치도는 .62~.77 범위에 있었고, 본 도구에서는 .93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0)

Variables	Male (n=93)	Female (n=127)	t	p	Total
	n(%) or mean±SD	n(%) or mean±SD			n(%) or mean±SD
Age	22.1±1.85	20.9±1.54	1.21	<.001	21.39±1.78
Grade			-0.529	.597	
1 st	13(14.0)	12(9.5)			25(11.4)
2 nd	26(27.9)	37(29.1)			63(28.6)
3 rd	28(30.1)	42(33.1)			70(31.8)
4 th	25(26.9)	36(28.3)			61(27.7)
5 th	1(1.1)	0(0)			1(0.5)
Major			1.086	.278	
Humanities/ Social science	30(32.3)	51(40.2)			81(36.8)
Natural science	15(16.1)	27(21.3)			42(19.1)
Engineering	17(18.3)	9(7.1)			26(11.8)
Health science	17(18.3)	23(18.1)			40(18.2)
Arts/physical education	6(6.4)	4(3.2)			10(4.5)
Education	6(6.4)	13(10.1)			19(8.6)
Others	2(2.2)	0(0)			2(0.9)
Subjective Economical Conditions			0.242	.809	
High	3(3.2)	1(0.8)			4(1.8)
Medium high	13(14.0)	21(16.5)			34(15.5)
Medium	43(46.2)	83(65.4)			126(57.3)
Medium low	22(23.7)	19(15.0)			41(18.6)
Low	11(11.8)	2(1.5)			13(5.9)
No response	1(1.1)	1(0.8)			2(0.9)
Residence type			3.186	.002	
Home	22(23.7)	58(45.7)			80(36.4)
Dormitory	32(34.4)	40(31.5)			72(32.5)
One's own family	39(41.9)	26(20.5)			65(29.5)
Lodging	0(0.0)	1(0.8)			1(0.5)
Relatives	0(0.0)	2(1.5)			2(0.9)
Living alone			-1.724	.086	
Yes	27(29.0)	24(18.9)			51(23.2)
No	66(71.0)	103(81.1)			169(76.8)
Living arrangement			2.020	.045	
Family	24(25.8)	57(44.9)			81(36.8)
Siblings	1(1.1)	2(1.6)			3(1.4)
Relatives	1(1.1)	2(1.6)			3(1.4)
Friends	32(34.4)	34(26.7)			66(30.0)
Others	5(5.4)	6(4.7)			11(5.0)
No respond	30(32.2)	26(20.5)			56(25.4)
Religion			-0.220	.826	
Christianity	22(23.7)	25(19.7)			47(21.4)
Buddhism	3(3.2)	8(6.3)			11(5.0)
Catholic	4(4.3)	9(7.1)			13(5.9)
none	64(68.8)	84(66.1)			148(67.3)
others	0(0.0)	1(0.8)			1(0.4)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4.749	<.001	
Yes	10(10.8)	46(36.2)			56(25.5)
No	83(89.2)	81(63.8)			164(74.5)
Sexual assault experience			1.420	.158	
Yes	0(0.0)	2(1.6)			2(0.9)
No	93(100.0)	125(98.4)			218(99.1)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0.853	.395	
Yes	85(91.4)	118(92.9)			203(92.3)
No	8(8.6)	8(6.3)			16(7.3)
No response	0(0.0)	1(0.8)			1(0.4)

2.3.2 성태도

성태도 측정을 위해 Heo[11]가 개발한 대학생 성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역산문항을 가지고 있다. 총점 35~175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태도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일치도는 .81~.93 범위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학과 4학년 10명을 선발하여 설문조사 자료수집과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제공한 후 캠퍼스 내에서 2018년 4월 한 달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 과정을 거쳤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구대상자 220명 중 여학생은 127명(57.7%), 남학생은 93명(42.3%)이었다. 평균나이는 21.39±1.78세였다. 3학년이 70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은 인문사회 81명(36.8%), 자연과학계열 42명(19.1%), 공학계열 26명(11.8%), 보건계열 40명(18.2%), 예체능계열 10명(4.5%), 사범계열 19명(8.6%), 기타 2명(0.9%)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절반 이상이 중간이라고 응답했고(126명, 57.3%) 주거형태는 자택 80명(36.4%), 기숙사 72명(32.5%), 자취 65명(29.5%)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8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7명(21.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6명(25.5%)이었다.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0.9%)이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3명

(92.3%)이었다(Table 1 참고).

3.2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연구대상자 전체의 성희롱 인식 수준 평균은 42.58±15.10점이었고, 성태도는 평균 112.19±15.61점이었다. 성희롱 인식 점수는 남학생 47.59±16.96점, 여학생 38.91±12.42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성희롱 인식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남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태도 점수는 남학생 109.99±15.41점, 여학생 113.80±15.63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p=.073$).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보수적인 성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참고).

3.3 성희롱인식과 성태도 상관관계의 남녀차이

남학생 집단에서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01, p=.003$)를 보였다(Figure 1). 즉,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99, p=.025$)를 보였다(Figure 2). 즉,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2. Gender Difference of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N=220)

Variable	Male (n=93)	Female (n=127)	t (p)	Total
	Mean±SD	Mean±SD		Mean±SD
Sexual harassment awareness	47.59±16.96	38.91±12.42	4.18 (<.001)	42.58±15.10
Sexual attitude	109.99±15.41	113.80±15.63	-1.80 (.073)	112.19±15.61

Table 3. Gender Difference of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N=220)

Variable	Male (n=93)		Female (n=127)	
	Sexual harassment awareness	Sexual attitude	Sexual harassment awareness	Sexual attitude
	r (p)		r (p)	
Sexual harassment awareness	1		1	
Sexual attitude	.301 (.003)	1	-.199 (.0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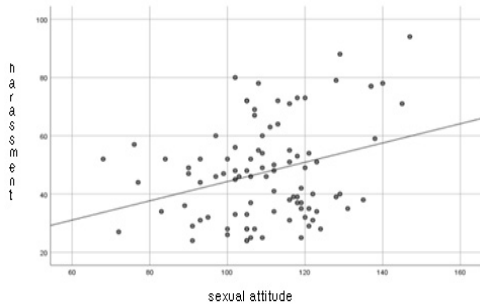


Fig. 1. A plot of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male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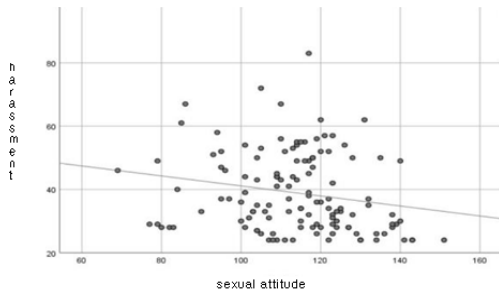


Fig. 2. A plot of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students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여학생보다 더 낮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6]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성희롱에 관한 개념인식의 범위와 폭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넓고 다양하다는 선행연구[12]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13,14]. 여성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15], 대학생 성희롱 인식조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희롱 인식이 높았다[6,16,17].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적 환경인 홍콩 대학생의 사례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18]. 여성들은 평소에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자들보

다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남성들은 가해자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9].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할 때 여학생과 커리큘럼의 차이를 두어 성희롱 인식수준을 높이도록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태도 차이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 차이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지만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1985년에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수적이었고[20], 2003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21]. 성문화가 서양보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개방적이었다[8]. 그러나, 2012년에 국내에서 연구된 다른 문헌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패락유희성, 성 허용성과 같은 일부 하위 영역에서만 남학생이 더 개방적이었다[9].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시점보다 길게는 35년, 짧게는 5년 후의 것으로 여학생의 성태도가 남학생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생의 성태도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남학생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고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남학생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남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들에게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성태도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선행연구[9]에서 남자와 여자 대학생 모두에서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통념 수용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 남학생의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 수용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성평등 의식이 낮고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고 개방적 성태도를 지닌 남성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에 대한 존중감이 낮고 성평등 의식이 낮아 자신의 불건전한 성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남자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자신의 개방적 성태도와 성희롱 인식수준의 관계를 통찰해 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으며 동시에 성태도가 보수적인 여학생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여학생에게 성희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적인 여학생들에게는 타인의 생각이나 강요가 아닌 여학생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성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희롱 대한 개인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1]. 성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향후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하며, 성문제 전반에 관한 성별 인식차이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 일회성의 대규모 강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심리적 성숙도, 성태도, 성희롱-성폭력 인식이 더 높지 않았다[2]. 연 1회 실시하는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생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일시적인 특강의 형태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23].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예방교육 내용이 달라야 할 것이다. 특히,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 즉,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남학생 집단과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여학생 집단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특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 대학교의 자료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태도와 성희롱 인식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는 향후 성별 특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발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개방적인 성태도의 남학생일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성태도의 여학생일수록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내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별의 구분이 없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성태도와 성희롱 인식 수준을 고려한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 집단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Lee & H. K. Kim. (2015).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944-3953. DOI : 10.5762/KAIS.2015.16.6.3944
- [2] Y. K. Cha. (2009).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sexual coping behavior*. Master's Thesis. Handong University, Pohang.
- [3] S. Y. Kim. (2004). *Youth Welfare*. Seoul : Zipmundang.
- [4] M. H. Cho. (2004). A study on the sexual culture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Student Life Research*, 32(2), 5-37.
- [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2). *Sexual harassment complaint case white paper*. Appendix: collection of cases of sexual harassment correction recommendations. 5.
- [6] Y. R. Lee, K. M. Kim & S. E. Choi. (2013).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40-50. DOI : 10.12799/jkachn.2013.24.1.40
- [7] S. Y. Pyo. (2008). *Educational law: Theory, policy, precedent*. Seoul : Bakyoungsa.
- [8] N. H. Kim, Y. J. Park. & H. S. Jung. (2015).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67(2), 17-42.
- [9] M. S. Yoo, J. W. Park & M. A. You.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1), 14-22.

[10] J. I. Kim, Y. M. Sohn & H. C. Kim. (2006).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sexual harassment to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11(4), 377-397.

[11] E. J. Heo. (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knowledge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12] H. S. Ha. (2007). Implic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counseling in campus: focusing on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8(3), 307-322.

[13] B. S. Kwak. (2004). The investigation and counter measures on the juvenile sexual consciousness and violence. *Sungkok Collection of Writings*, 35(13), 403-471.

[14] Y. I. Kim, M. S. Kim, S. J. Choi & J. A. Bai (2001). A study of the perception of sexual role an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2(1), 247-260.

[15] N. Y. Lee, K. S. Kim & H. J. Lee. (2014). Workers' conceptualizations and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public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1, 33-58.

[16] H. M. Jung. (2004). A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0(3), 291-299.

[17] O. I. Park & Y. A. Chae. (200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victi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countermeasure.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Material*, 10, 130-134.

[18]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2013). *Study on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views on sexual harassment*. Hong Ko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19] J. I. Kim, S. C. Choi & Y. M. Sohn. (2001). Effects of gender differences and sex-role attitudes on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man*, 6(3), 1-22.

[20] S. Hendrick, C. Hendrick, M. J. Slapion-Foote & F. H. Foote. (1985).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630-1642. DOI : 10.1037/0022-3514.48.6.1630

[21] S. Leiblum, M. Wiegel & F. Brickle. (2003). Sexual attitudes of US and Canadian medical students: the role of ethnicity, gender, religion and acculturation.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8(4), 473-491. DOI : 10.1080/14681990310001609813

[22] J. H. W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maturity, sexual attitud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uwon.

[23] S. J. Kim. (2015)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52-362. DOI : 10.5392/JKCA.2015.15.02.352

조 선 희(Sunhee Cho)

[정회원]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6월 : Hunter-Bellevue School of Nursing,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sych/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MSN)
- 2011년 8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융합간호, 지역사회정신보건
- E-Mail : chosunhy@gmail.com

한 은 주(Eun-Ju Han)

[정회원]



- 2013년 2월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아동학석사)
- 2019년 2월 : 목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융합간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 E-Mail : hejsyc@hamail.net